


기사 입력시간 : 2015-12-01 오전 11:04:16


 프린트

신품 '메디커튼',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

'히알우론산+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 복합제, 뛰어난 유착방지 효능

신품제약(대표 유제만)과 포스텍(한세광 교수)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착방지제 '메디커튼'이 '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신품제약 유제만 대표이사(오른쪽)와 포스텍 한세광 교수가 메디커튼의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에 대한 적응 증을 연이어 획득했다.

신품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1월 '갑상선 수술', 10월에는 '비·부비동 수술 후 유착감소 효과'에 대한 적응 증을 추가해 유착방지제로서 가장 넓은 범위의 5개의 적응 증을 보유한 제품이 됐다.

메디커튼은 국내 유착방지제 가운데 가장 많은 3상 임상 진행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를 입증했다.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한 이 날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메디커튼주사는 생체적합성과 상처치유력이 우수한 '히알우론산(H.A)'과 항혈액응고 및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HES)'를 복합해 수술 후 유착방지용 주사제로 개발된 제품이다.

고점탄성 히알우론산에 의한 물리적 장벽(막)형성 기능 뿐 만 아니라 유착 발생의 근간을 이루는 혈전 및 염증형성을 억제해 탁월한 유착방지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다양한 임상시험으로 입증됐다.

메디커튼은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자궁경 수술 후 유착방지 허가를 받은 이후, 2013년에 복부(복강경) 수술과 척추수술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